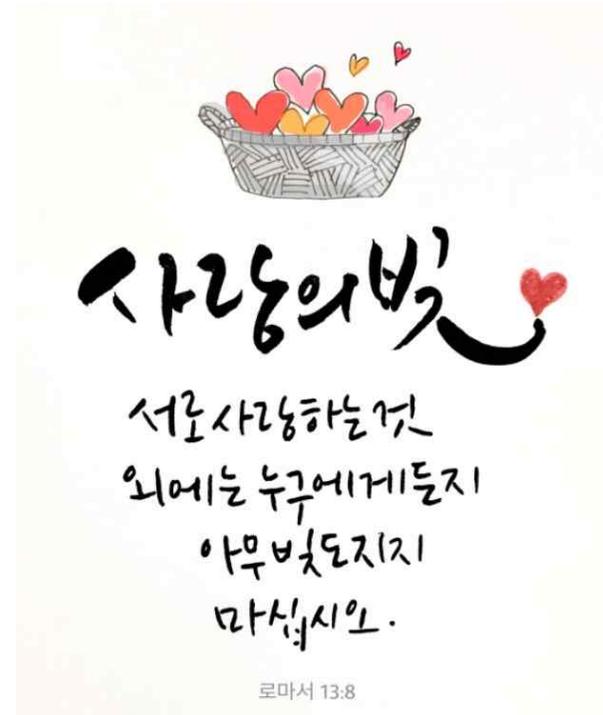


교회소식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인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세요.
 등록: 류상묵/은선미(희주,희지)
 생일: 김은혁(8/3), 최요셉(8/16), 류상묵(8/28)
2. 신앙도서리더스클럽을 모집합니다.
3. 어린이교회 달란트 시장: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4. 가을 정기 노회 안내 : 9/ 9-11 (밴쿠버지구총교회)
5. 9월부터 예배 후 성경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 주 통계	
주일 헌금	CD \$35
감사 헌금	CD \$70
십일조	CD \$100
장년 출석	11명
어린이 출석	14명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 승 용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연락처: 1-902-746-3566, mahanaim0904@gmail.com

www.dartmouth-k-church.com

주일 예배 순서

목회자 칼럼

여는 기도		김승용목사
찬양		다함께
성경봉독	마 26:26-28	김승용목사
어린이성교	생명으로 생명을!	김승용목사
대표기도		김승용목사
성경봉독	갈 5:13-15	다함께
설교	사랑으로 종이 되라!	김승용목사
교회소식		김승용목사
결단의 찬양		다함께

(어린이교회) 마태복음 26:26-28

- 26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 27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 28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갈라디아서 5:13-15

- 13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 14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 15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대헌장'이라고 불립니다. 지금은 터무니없지만 인류역사의 아주 오랜 시간동안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혈통적으로, 또 어떤 이는 전쟁으로, 또 누군가는 가난으로 인해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로 지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우리도 불과 몇 년 전에 일본에게 자유를 빼앗겨 노예처럼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를 빼앗긴 이들 모두의 가장 큰 소원은 바로 자유였습니다. 노예제도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지금의 우리에게 낯설겠지만 초대교회 시절 우리 모두가 범죄함으로 죄악의 노예가 되어 사망이라는 족쇄에 갇혀 있는 존재라는 사도들을 외침은 분명 그들에게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묶고 있던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림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복음의 선포는 마치 숨죽여 살다 광복의 소식을 듣고 온 거리에 뛰쳐나와 기쁨의 만세를 외쳤던 그날의 감격과도 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서의 변화를 누리게 된 이들에게 다시는 종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 것을 당부하는 성경의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누가 다시 노예가 되길 원하겠으며 어떤 댓가(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를 치루고 얻은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유를 얻은 우리 스스로가 종의 자리에 서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자유가 없는 상태로 굴종하는 노예였다면 이제는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사랑이란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손해가 될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세상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터무니없는 댓가를 기꺼이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서 낮고 낮은 구유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거룩한 심판자가 죄인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사랑과 섬김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겸손은 바늘과 실처럼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짐승의 피로 세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사이에 세운 새 계명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5:12)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함을 얻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치 우리의 종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교회에서 이런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 한사람 한사람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수가 목회 성공의 잣대로 교회의 규모가 자신의 권력의 규모로 변질되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사랑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산적인 사랑방법으로 편을 가르고 무리를 짓고 결코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의 적당한 사랑에 익숙해졌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베푼 사랑에 대해 대대적으로 드러내어 자랑하고 싶은 마음(좋은 결코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에 우쭐해져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다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깔아뭉개기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랑은 한다고 외치지만 결코 서로에게 종이 되긴 거부합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만 사랑하는 자기애의 노예로, 성공의 노예가 되어 버려 서로에게 스스로 종이 되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의 사랑이 아니라 세속적인 정말 계산적인 이율배반의 사랑으로 적당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사랑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돈과 자기 사랑에 빠진 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사랑을 자신의 의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랑에서 거리가 멀어집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은 놀랍게도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바울은 큰 은사 즉 사랑의 은사를 설명하고 그 은사를 받도록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거짓된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비로써 그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새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분의 벗이 될 것입니다.

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승용

You Are My All in All

2 Corinthians 12:10
PART I

Words and Music by
Dennis L. Jernigan



1.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2.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ris-ing a-gain I bless Your



seek. You are my All in All. Seek-ing You as a pre-cious
name. You are my All in All.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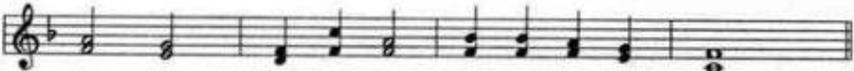


jewel, Lord, to give up I'd be a fool. You are my All in All.
up; When I am dry, You fill my cup. You are my All in All.

PART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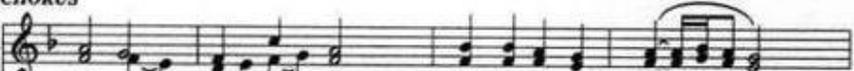


Je - sus, Lamb of God, Wor - thy is Your name.



Je - sus, Lamb of God, Wor - thy is Your name.

CHORUS



Je - sus, Lamb of God, Wor - thy is Your name.



Arranged by Ken Young

Copyright © 1990 Shepherd's Heart 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내 구주 예수님 Shout to the lord

Darlene Zschech

올네이션스 역



내 구주 예수님 주갈은분없-네 - 내 평생에
위로가 되시며 피난처되-신 주님 - 나의영혼
My Jesus my savior Lord there is none like you All of my days
My comfort my shelter Tower of refuge and strength Let every breath



- 찬양하리 - 놀라운 주의 사 랑 을
I wants to praise The wonders of Your migh - ty love



- 오만대해 - 주를 경배 함 니 다
all that I am Never cease to wor - ship You.



온 땅이여-주님께-외쳐라 - 능력과 위-영의왕-되신 주-
Shout to the Lord All the earth let us sing Power and majesty praise to the king



산과 바다-소리쳐-주의-이름 을 - 높이 리 -
Mountain bow down And the seas will roar At the sound of Your name -



주행한 일-기뻐노-래하며-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I sing for joy at the work of Your hands Forever I'll love You forever I'll stand



신실하신-주의약-속내받-았네 -
Nothing compares to the promise I have in You

섬김

G D/F# C/E G/D C G/B
하늘의 영광을 - 다 버리고 - 낮은 이곳에 -

Am D G D/F# C/E D/F# G D/F#
내려오 - 신 주 - 죽기까 - 지나를 - 사랑하신 -

Em /D C#dim D sus4 G /B
그 사랑 얼마나 - 큰지 - 우리가 높아지면 - 그가

D/C C G/B Am7 Am(maj7) Am D sus4 D /C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 그가 높 이시리 - 하나 - 님이

A#m7(b9) F7 Am Cm6 G/D
- 원하시는 - 세상 - 으로 - 나 자신을 - 드리 - 는 - 섬김으로

Am /D G /B D/C C G/B
-- - 내 발을 닦아 - 주 - 사 -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

Am7 Am(maj7) Am D sus4 D /C Bm7(b9) E7
랑 하라고 말씀하시었네 - 하나 - 님이 - 원하시는 - 세상

Am Cm6 G/D D sus4
- 으로 - 나 자신을 - 드리 - 는 - 섬김의 모 습이 - 되기를

G /B D/C G/B Am D sus4 /C
-- -

나의 가는 길

Don Moen

God will make a way

예수전도단 역

G D/F# C/E G/D
나의가 - 는 길 - 주님 인도하 - 시네 -

C G/B Am7 Cmaj7/D D
그는 보이지 - 않아도 - 날 위해 - 일하 - 시네 -

G D/F# C/E G/D
주나의 - 인도 - 가 항상 함께하 - 시네 -

C G/B Em7 Am7 D/A Am7 D/A
사 랑과함 - 배 푸시며 - 인도하 - 시네 -

Cmaj7/D G Fine 1. Am D/A C/D D 2. G G/F
인도하 - 시 네

Eb F Eb/Bb Bb F/G
광야 에 길을 만드시 - 고 - 날 인도해

Gm7 Eb F Gsus4 G
사 막에 강 - 만드 - 신 것 - 보라 -

C D/C Bm B/D# Em Em7/D
하늘과 땅 - 변해 - 도 주의 말씀영 - 원히 -

C D Bsus/E E Bsus/F#
내 삶 속에 - 새 일을 행 - 하리 - -

D.C.
al Fine

예수 가장 높은 이름 예수 가장 강한 능력 X2
 그 이름 찬양해 그 능력 찬양해
 온 세상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예수 가장 높은 이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높여 찬양하리

Sing Sing Sing

Chris Tomlin

♩ = 148
D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 - 는 노 - 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 - 으 시 - 네 감사
 드 리 며 - 예 수 이 름 - 높 이 세 -
 사 랑스 러 - 운 주 - 님 땅 과 하늘 - 찬 양 --해
 열 방 이 - 경 배 - 해 예 수 님 - 당 신 - 은 주
 - 유 일 - 하 신 -
 사 랑스 러 - 운 주 - 님 땅 과 하늘 - 찬 양 - 해
 열 방 이 - 경 배 - 해 예 수 님 - 당 신 - 은 주
 - 유 일 - 하 신 - 삶 의 이유 -